

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50 굿모닝 채널A	09:00 2012런던올림픽 (육상100m, 배드민턴)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2012런던올림픽 특집 MBC뉴스투데이 1~2부	05:00 런던 2012 00 런던와이드 1~2부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50 인간극장	30 굿모닝 런던	10 2012런던올림픽 특집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	15 KBC 뉴스지금 30 런던와이드 3부
40 박영수의 돈의 맛재	25 아침이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특집다큐멘터리 <환경수호, 자연과의 공존>	30 아침연속극 <내 인생의 단비>
40 신문으로 보는 세상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사랑아 사랑아> 40 2012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1~2부	30 MBC 뉴스 45 2012런던올림픽 하이라이트	10 런던 2012특집 <역사를 위한 역사> 00 좋은아침
40 채널A스모츠 런던라이브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2012 글로벌 디큐멘터리 <미래를 보다 제1편>			20 SBS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55 바른말 고운말			00 런던 2012특집 SBS 12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00 채널A뉴스 20 구름빵 50 그 여자 그 남자 스멜	00 KBS 뉴스 12			30 임마랑 아빠랑 지구한바퀴
00 2012런던올림픽 중계식플러스	00 2012런던올림픽 중계식플러스	00 사랑의 가족 30 영화가 좋다(재)		00 맛있는 아시아 푸드런터(재) 50 SBS 뉴스
50 이연경의 세상만사 1~2부	00 KBS 뉴스 10 2012런던올림픽 중계식	30 2012 Summer 빅 콘서트 <여름! 바다! 젊음!>		00 넷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0 KBS 뉴스타임 35 메타제트(재)	50 MBC 뉴스	00 동화속 과학탐험 30 영광의 도전 내일의 챔피언
00 오리비전(재) 30 채널A스모츠 런던라이브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도그라피	00 뽀뽀뽀 아이즈 30 TV유치원 50 일록달록 종이마을	0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끝나지 않는 신화, 장미란>	00 런던 2012특집 SBS 뉴스퍼레이드 30 생방송 투데이 1~2부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20 맛있는 퀴즈쇼! 행운의 식탁 50 2012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탁구, 육상 각 종목>	00 2012런던올림픽 <탁구, 육상>	10 런던 2012특집 <이문대 정체성 두번의 실패는 없다>
40 이영돈PD의 먹거리X파일(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바꾸기			00 런던 2012특집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50 런던 2012 <탁구, 사격, 레슬링, 하키>
5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25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	50 위기탈출 넘버원	55 2012런던올림픽 특집 MBC 뉴스데스크	
	00 KBS 뉴스9	55 월화드라마 <해운대 연인들>	55 MBC 월화특별기획 <골든 타임>	
00 뉴스A	00 2012런던올림픽 <기계체조, 탁구>			
00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20 KBS뉴스라인 40 베이스볼 매거진 <야호>	15 2012런던올림픽 여기는 런던 <체조, 탁구, 레슬링, 육상>	15 2012런던올림픽 <체조, 싱크로나이즈, 육상, 탁구>	
10 박종진의 '쾌도난마' 01:10 신석호의 통일시계(재)	35 KBS 뉴스 40 2012런던올림픽 <탁구, 싱크로나이즈>			01:30 런던 2012특집 다큐멘터리 45 런던 2012 <레슬링, 역도, 육상>

“방이숙 덕분에 연기 변신 성공했어요”

배우 조윤희, KBS 2TV '넝쿨당'서 털털매력 발산



이러 배우는 생각조차 못했다. 그러나 170cm 의 이 늘씬한 미인은 고3 때 길거리 캐스팅 돼 잡지모델 일을 시작했고 이어 연기까지 하게 됐다. 그는 '넝쿨당' 직전에 스틸러 영화 '공모자들'을 촬영했고 이 영화는 오는 30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임창정 오빠와 함께 찍었는데 오빠가 제게 '나랑 찍은 여배우는 2년 안에 무조건 뜬다. 100% 확실하다'고 장담했어. 그런데 '넝쿨당'이 잘됐잖아. 얼마 전에 영화협회와 회식했는데 오빠가 '거봐!'라며 웃더라고. (웃음)"

“방이숙을 연기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전까지는 ‘나한테는 색깔이 없나?’ ‘난 한가지 이미지가 없나?’ 고민하며 움츠러 들었죠. 그런데 방이숙 덕분에 이런 또다른 역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조윤희(30)<사진>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다. 시종 환하게 웃었고 말에서는 즐거움이 묻어났다. 최고 인기 드라마 KBS 2TV 주말극 ‘넝쿨당’에서 ‘넝쿨당’에서 탈탈한 선머슴 같은 여자 방이숙을 연기 중인 그를 최근 을지로에서 만났다. “보이시한 역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고는 다녔지만 실제로 이런 역이 올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이렇게 쇼트컷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구요. 그런데 모든 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20대 때 저보고 쇼트컷을 하라고 했으면 정말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10년 넘게 길러온 머리가 마침 지겨워졌던 타이밍이었고 보이시한 역에 대한 갈증이 있을 때 방이숙을 만났어요. 아마 사발을 하라고 했어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웃음)” 대충 걸침임은 듯한 티셔츠와 바지 차림의 방이숙은 연애에 속박된 데다 남자처럼

털털하고 무딘 아가씨, 말 그대로 ‘대변신’이다. “사실은 이숙이 같은 패션이 제 평소 모습이에요. 전 평소엔 그렇게 편한 차림으로 다니거든요. 그런데다 화장까지 거의 안하니 ‘넝쿨당’에서 제 분장시간이 남자배우들보다도 더 짧아요. 전 30분이면 모든 게 끝나는데 상대역인 최준 오빠는 1시간 정도 걸려요.(웃음)” 방이숙 캐릭터가 뜬 데는 그의 상대역인 천재용을 연기하는 이희준의 공이 가장 크다. 이를 커피의 인기로 조윤희와 이희준은 이미 동반 광고 촬영을 하기도 했다. “상대배우 윤이 가장 좋았어요. 제가 파트너 덕분에 돋보이고 있죠. 처음엔 최준 오빠를 잘 몰랐는데 하면 할수록 되게 매력적인 배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빠가 너무 잘해요. 현장에서 애드립도 얼마나 웃기는 데요. 근데 방송시간 때문에 통편집된 게 많아 너무 아까워요. 예전에는 코믹 연기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오빠를 보면서 나도 저런 코믹 연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됐어요.” 어린 시절 그는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6일 (음 6월 19일 己亥)

子 36년생 확고한 기준이 필요하다. 48년생 여러 각도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60년생 집중적으로 눈여겨봐야 한다. 72년생 상태를 너무 조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리라. 84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 행운의 숫자 : 41, 05	午 42년생 예상 밖의 결과로 인해 큰 성취감을 맛보리라. 54년생 기본적인 성질을 파악하고 나면 훨씬 수월하겠다. 66년생 다양하게 활용될 희귀한 것을 얻는다. 78년생 크고 귀한 행운을 누리는 기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1, 85
丑 37년생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할 것이다. 49년생 사람의 속마음이란 헤아리기 어려우니라. 61년생 하모니가 중요하다. 73년생 약간 과잉 상태로 끝나겠다. 85년생 본능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 하자. 행운의 숫자 : 56, 14	未 43년생 실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임을 알라. 55년생 반드시 원칙을 준수 하자. 67년생 전망과 발전 가능성을 정확히 가늠해야 한다. 79년생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큰 바람을 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0, 11
寅 38년생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50년생 사인의 실체를 꿰뚫어 볼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62년생 유혹의 함기는 참으로 담담할 것이다. 74년생 정례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처리로 부산한 날이다. 행운의 숫자 : 45, 23	申 44년생 중간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낫다. 56년생 실제와 다르다면 반드시 보정하여야 한다. 68년생 손수 행하는 것이 훨씬 투명할 것이다. 80년생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유지하자. 행운의 숫자 : 15, 72
卯 39년생 생각해 왔던 것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다. 51년생 역류할 정도로 흐름이 심상치 않다. 63년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띠겠다. 75년생 제 본수도 모르고 강직하게 맞대응한다면 필패 하리라. 행운의 숫자 : 83, 33	酉 45년생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주려는 이가 있다. 57년생 지탱해 주는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69년생 축하해 줘야 할 일이니 자리를 빛내 주도록 하자. 81년생 의식하는데 그치지 말고 표현하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78, 28
辰 40년생 오묘한 진리를 터득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겠다. 52년생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64년생 인연의 꽃이 만발하여 유기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76년생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12, 64	戌 46년생 능력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58년생 매끄러운 소통과 교류가 절실할 때이다. 70년생 중요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82년생 배물면서 살아가려는 마음의 자제가 흥왕의 운을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5, 04
巳 41년생 단순한 느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53년생 방지방어는 조처가 절실하다. 65년생 겉으로는 상반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것이다. 77년생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자. 행운의 숫자 : 50, 76	亥 47년생 하루 종일 자리를 뜨지 못할 정도로 바쁘겠다. 59년생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이에게 맡기자. 71년생 부딪치면 상호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83년생 절대로 따라야 할 것이니 수용토록 하라. 행운의 숫자 : 99, 6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열” ☎010-9790-8237

EBS	
06:00 헬스투데이 06:30 아름다운 소원 07:00 어린이왕자 07:30 아기중독 버디 07:45 로보카 폴리 08:00 똥똥똥 유치원 1~3 08:30 부릉부릉 브루미즈 08:45 숲 속 친구 피파롤라 09:00 방구대장 뽕뽕이 09:10 뽀로로와 노래해요 09:15 똥똥똥 유치원 09:30 똥똥똥 유치원 09:45 신글빙글 피지 10:00 달라졌어요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고종영의 감자한 간식과 맛진 디저트- 바삭바삭크로켓과 깜찍 햄버거> 11:20 부모 <머리는 좋는데 성격이 안 온드르다면>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기획 다큐멘터리 <기업의 힘> 13:00 초등1년 EBS 여름방학생활 13:20 초등3년 EBS 여름방학생활 13:40 초등5년 EBS 여름방학생활 14:00 지식채널 e 14:10 EBS 다큐프라임 <학교와 마을, 그 아름다운 공존>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p>I'm a newcomer to this office 저는 신입사원입니다</p> <p>A : How long have you worked here? B : Not long. I'm a newcomer to this office. A : Oh, so you are the new guy. welcome to our office. B :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p> <p>A :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까? B : 얼마 안 되었는데요, 저는 신입사원입니다. A : 아, 그러면 새로 오신분이군요. 회사에 입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B :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p>* 신입사원 = fresh recruit = new employee = an incoming employee = a new employee = a new guy = a newcomer * 퇴직사원 = an outgoing employee</p> <p><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p>	<p>改過遷善(개과천선) 고칠 개, 지날 과, 옮길 천, 착할 선</p> <p>개과천선(改過遷善)은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된다.'는 뜻이다. 진(晉)나라 때 주처(周處)라고 하는 과상할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 있었다. 남달리 힘이 세어 보면 사람이 당해내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이 힘을 이용해 결박한 뱀을 두들겨 패기 일수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와 마주치는 걸 두려워했다. 그랬던 그가 언제부턴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사람이 되리라 굳게 마음먹었다. 하지만 주처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의 감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정든 고향을 등지고 동요에 가서 대학자를 만나 그동안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난 일을 반성하는 주처를 보며 대학자가 말하길, "자네는 나이가 아직 젊네! 절대 늦지 않았으니 굳은 의지를 갖추고 지난 허물을 고쳐 새로이 착한 사람이 된다면 자네의 앞길은 무한할 걸세."라고 격려를 해주었다. 이때부터 주처는 뜻을 세우 학문에 온 정성을 쏟았다. 그 결과 10년 후, 마침내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대학자가 되었다.</p> <p>[출전] 『진서(晉書)』, 『본전(本傳)』</p> <p><대웅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p>

니하오 쑹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p>趁热打鐵 chèn rè dǎ tiě 쇠뿔도 단김에 빼라? 왜 쇠뿔을?</p> <p>‘뜨거울(熱) 때(趁) 쇠(鐵)를 치라(打)’라는 말로 어떤 일을 할 때 절정을 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말입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우리말 번역을 보았습니다. 소의 뿔을 뿔 때는 확 그냥 단번에 빼버려야지 뿔까 말까 망설이거나 빼다 말다 하면 오히려 소뿔에 바치게 된다고. 그런데 왜 소뿔을 빼려고 했을까가 의문이고, 뿔을 빼버린 소를 본 적이 없어서 속담의 감이 오질 않네요.</p> <p>모네기가 끝난 들녘 사진을 보여주며 1)농촌 2)어촌 3)산촌 중 어느 곳의 풍경인가라고 묻는 문제에 어촌을 골랐다는 아이의 말. 바다같이 보였다고 보지 않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보고도 잘못 아는 경우도 많은데요.</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蒸し暑くなります。 무더워 집니다</p> <p>A : この頃 雨の日は多いです。 B : 昨日も 今日も 雨ですね。 A : 明日から 雨が 止む そうです。 B : 蒸し暑くなりますね。</p> <p>A : 요즘 비오는 날이 많군요. B : 어제도 오늘도 비군요. A : 내일부터 비가 그치네요. B : 무더워 지겠군요.</p> <p>この頃 요즘 多い 많다 少ない 적다 そうです ~한답니다 雨が止む 비가 그치다 雨が降る 비가 내리다 暑い 덥다 蒸し暑い 무더다</p> <p><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p>